

나에게, 우리에게, 가족이란?

영화 <어느 가족(万引き家族)>(2018) 감상문

2018112749 전현승

CLTR032002 일어 I

일본의 수도 “도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 복잡한 출퇴근길, 밤늦게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가? 나 또한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화 <어느 가족(万引き家族)>(2018)을 통해 이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되었다.

영화에서 비추는 도시 풍경들은 내가 알고 있던 일본이라는 나라, 도쿄라는 대도시가 주는 이미지와는 달랐다. 와이셔츠를 입은 직장인들이 아닌, 그 이면에서 도둑질을 일삼고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을 볼 수 있었다. 빠른 장면 전환으로 도시 외곽에서 비루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시골 변두리 풍경,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밝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울함이 묻어나오는 분위기와 풍경들,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가족관계.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불편함과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다. 영화는 그렇게 일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사건 없이 이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다가, 마지막까지도 덤덤하고 허무하게 끝난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끝나고도 놀라웠던 점은, 비록 생활 수준이나 대화의 주제 수준은 낮을지 몰라도, 이들이 영화 내내 보여주었던 것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특별한 사건 없이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었을 뿐이지만, 가식이라고는 없는 직설적인 말투, 함께하던 가족이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 등을 영화 한 편에 소박하게 담아낸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국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영화 내용 외적으로도 대단하다고 느낀 점이 많았는데, 특히 촬영 기법과 영상미가 일품이라고 생각한다. 최후반부의 쇼타와 아버지가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을 비추는 장면이 철저히 분리되고, 두 사람은 절대 한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정말 가족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관객들에게 남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도 많다. 특히 영화 진행 내내 실용에서 쓰이는 일본어 발음, 화법, 어휘 등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일본 드라마나 예능에 관심이 많아 매체로 일본어를 그나마 많이 접했던 터라 듣는 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던 상태였지만, 실제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이는 발음이나 줄임말, 화법, 어휘 등은 배우기 어려웠다.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매체에서

등장하는 한국어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가 다른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특히 앞서 말했듯 등장인물들의 직설적인 화법과 특수한 상황 덕에 새로이 얻어가는 지식이 많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도가 되겠다. 누군가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따뜻한 보금자리의 역할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이라는 집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작은 사회로, 많은 매체에서도 가족은 한 사람의 성장이나 스토리 진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가족은 무엇으로 이어져 있는가?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가? 무엇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 가족이란 정말 무엇인가? 나조차도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아닐지 생각해본다.